

民族·民主의 대학, 朝鮮大學校

丁 炳 杰

(朝鮮大 總長)

1. 民族史에 길이 빛날 設立同志會

1) 設立의 歷史

“湖南地方에 완전한 綜合大學을 세워 호남의 수재와 朝鮮各地의 영재를 모아서 培育하자는 생각과, 文化는 언제든지 英才가 창조·발전하여 일반 국민은 그 文化를 향유하며 悅樂하는 것이 文化進展의 현상이고 보며 조선의 文化를 세계 수준에 급속히 따라 넘게 하는 데는 個性敎育體系를 完립하며 과거의 同型彫塑의이고 綜合的이었던 敎育에 反하여 개성의 본질과 특수능력을 발휘시킬 수 있는 個性敎育을 하고자 하는 敎育이상과, 敎育의 분야에 있어서 學資의 裕資으로써 英才의 擲沒을 可우치 않게 하자는 생각과, 과거의 敎育이 敎실과 社會현장과의 隔리가 너무나 심하여 實地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敎育理想과 社會現實과의 背理와 隔리가 낡은 생산의 비합리, 社會생활의 窒礙과 愚昧, 發明의 阻礙, 理想과 希望의 絶望 등을 극복하자는 생각들이 합하여 상기한 이상을 구현할 수 있는 조선대학을 設立하고자 구체적으로 朝鮮大學 設立同志會가 設立되었습니다.”

이는 조국 광복의 감격이 敎育을 통한 민족문화 창달로 승화되어 가던 1946년 5월에 조선대

학 設立동지회가 온 민족 앞에 내건 設立이념의 한 부분이다. 그 속에 강조되어 있는 개성敎育과 현실적 敎育의 실현의지 및 敎育기회 확대의 필요성은 근대의 여명기를 살아가던 겨레의 가슴에 절실한 요청으로 타오르고 있었기에 民族敎育을 열망하던 대중들 앞에 공감의 불길은 급속히 확산되어 갔다.

이러한 취지에 적극 찬동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던 그 해 9월 光州夜間大學園이 개교하게 되니 학교 設立의 꿈은 마침내 현실로 이루어지고 設立동지회 활동 또한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의연한 設立의지 아래 간곡한 참여요청을 구구절절 담았던 입회 권유문은 다음과 같이 계속된다.

“세계 소위 文化國이 그 근대적 大學-中學-小學의 敎育체계를 채용한 것이 불과 幾年에 지나지 못한 것을 회고할 때에 우리들은 황토로라도 담을 쌓고 창호지로나도 문을 발라서 허청에서라도 한 字를 아는 사람은 한 字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치어 우리는 우리 民族文化를 건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선대학 設立동지회는 이러한 각성과 결심에서 우선 朝鮮大學園을 設立하여 주야로 조선의 準재를 敎育중에 현하 혼란과 궁핍한 처지에서 難難을 물리치고 壯대한 포부와 견고한 신념을 가지고 탄생한 이 대

학원이 세계열강의 어느 역사적 대학보다도 탁월한 교육기관이 되어서 우리들을 이 도탄과 참경에서 구원할 수 있는 民族的 指導者들이 수천수만이 배육되도록 촉박하시려는 마음으로 조선대학 설립동지회 회원이 되시어 一心同力하시어 주시옵.”

時代的 勸誘에 응답하는 民衆의 行렬은 다음 해가 지나도록 그칠 줄 몰랐다. 지식인, 관리는 물론이요 너슴과 촌부에 이르기까지 앞을 다투어 참여한 회원의 수는 설립인가 신청 무렵인 1947년 말까지 무려 7만 2천여 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이와 같이 民主的 節次와 多數의 參與로 이루어진 대학의 설립역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유례를 찾아 보기가 쉽지 않다. 본교의 설립은 民主와 民族을 배경으로 한 歷史的 要請에 대해 민중이 총체적으로 응답한 教育史上의 一大 快學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 2의 跳躍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우리 사회가 정치적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될 무렵, 본교에도 숭고한 이념을 훼손시키는 몇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획일적 運營體制였던 바, 그 아래에서 民主·民族 大學의 正統性이 차차 퇴색되어 갔고 대학구성원들의 意氣도 눈에 띄게 沮喪되어 버렸다. 1980년대 중반까지 존속해 오던 이 체제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대대적인 반성과 갱신 노력 끝에 드디어 종언을 고하게 된다.

이후 본교는 제반 제도를 民主的으로 정비하고 대학운영의 면모를 쇄신하여 교육여건의 개선에 일대 혁신적 노력을 경주하면서 구각을 벗고 民族大學의 本性을 회복한다. 이것은 제 2의 도약을 꿈꾸며 그 발판을 확보하려는 朝大人들에게 마련된 역사적 전기가 아닐 수 없었다. 大學 再創造의 模範이 되고자 의욕적이고 창의적인 힘을 결집시키고 있는 본교에 지난 해 7월 총장으로 취임한 본인은 개교 46주년 기념식전에서 앞으로 朝鮮大學校가 해결해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基本課題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아마도 이 내용 속에 본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과제가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본다.

“첫째는 舊財廳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명실공히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이사진출을 구성하는 것이요, 둘째는 교수는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고 학생은 면학에 힘쓰면서 미래를 구상하고 젊음을 구가할 수 있는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활기찬 學園을 만드는 일이요, 셋째는 다가오는 21세기를 향하여 웅비하는 위대한 민족의 조선대학교, 세계의 조선대학교를 건설하는 것이다.”

2. 無等山下에 펼쳐진 偉容

1) 教育設施의 擴充

광주직할시 동구 서석동 375번지에 60만 평을 헤아리는 광활한 캠퍼스를 가진 朝鮮大學校는 光州市民들의 정신적 表象인 無等山の 줄기에 연하여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호남 땅에 들어 무등의 용자를 대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아랫널터 펼쳐져 있는 본교의 氣像과 儀容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무등의 용자는 곧 朝大人의 기상으로 인식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최고 卞족한 본관 건축물토 인해 세간에 첨예한 인상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를 심분 고려하여 이제 본관의 양쪽 옆으로 각각 교수연구동과 학생회관을 원형건물로서 이원만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교육적 특성을 감안하여 거기에 부합되는 설계를 통해 이루어진 아름다운 校舍가 속속 준공되고 있다. 지난 해 9월 개관한 자연과학관은 첨단연구시설은 물론이요 국제학술회의장으로도 손색이 없는 설비를 갖추고 있어 각종 학술세미나가 끊임 새 없으며, 초대형 체육관도 웅장한 모습으로 온대 학인들 앞에 공개되었다. 앞으로는 필요한 단과 대학 실험실, 연구실들과 함께 도서관 건립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도서관의 기능을 하루 속히 정상화시킬 계획이다.

2) 3개 大學院, 15개 單科大學

본교는 3개 대학원과 15개 단과대학, 20개의 부설연구소 및 각종 부속기관을 두어 학문의 연찬과 교수에 진력하고 있다. 550여 명의 교수들 비롯한 직원, 학생 등 2만여를 헤아리는 대학구성원들의 단합된 열기는 民族과 地域社會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하여 더욱 뜨겁

다.

기구 조직을 간단히 살펴보면 1953년에 설치되어 47개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유서깊은 大學院을 비롯하여 교육대학원, 산업대학원이 있고 단과대학으로는 인문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 외국어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체육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산업대학, 미술대학, 이부대학 등 15개 大學에 77개 學科를 설치하고 있다.

20개 附設研究所는 자기 독특한 고유의 연구 사업을 계획 추진해 나아가면서 근래 外國 研究所와의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작년에 체결한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철학 연구소와의 자매결연도 이제 研究所 次元에서 구체적인 학술활동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유형의 활동에 지원의 폭을 더욱 넓힐 방침이다. 그 구성은 인문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자연과학연구소, 생산기술연구소, 국토개발연구소, 원자력연구소, 동력자원연구소, 전통문화연구소, 구강생물학연구소, 약학연구소, 경영경제연구소, 환경공해연구소, 통일문제연구소, 외국문화연구소, 교육연구소, 의학연구소, 학생생활연구소, 조형미술연구소, 스포츠과학연구소, 유전생물공학연구소 등이다.

또한 부속병원, 부속치과병원, 부속광양병원 등 3개 醫院과 함께 대학의 부속기관으로는 중앙도서관, 전자계산소, 출판국, 보건진료소, 조대신문사, 교육방송국, 영자신문사, 박물관, 미술관, 에민부 등이 있다. 1971년 개원한 이래 입원환자만 2백만 명을 헤아리기까지 의료의 대사역을 담당해 온 부속병원은 수련병원, 軍專攻醫院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명을 함께 맡아 치과병원과 함께 寧日이 없는 社會奉仕를 수행하고 있다. 더구나 의료시설이 빈약한 호남 동부지역에 光陽病院을 열어 첨단 의료장비를 갖추고 지역 봉사와 의학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일이다. 제한된 지면으로 인해 부속기관을 일일이 소개하지는 못하나, 특히 한 가지 지나칠 수 없는 곳은 美術館이다. 1989년에 개관된 미술관은 대학의 교내미술관으로서 보기 드문 시설을 갖추었으며 매년 企劃展을 통하여 지역문화를 학문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제학

생 예술활동의 장으로는 물론이요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도 사용되도록 봉사하고 있다.

3. 未來志向의 大學으로서의 面貌

1) 研究中心의 大學

모든 대학이 그러하겠지만, 보다 나은 대학의 장래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일은 研究中心의 風土를 조성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집중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學術研究能力의 신장이야말로 大學의 根本을 확고하게 해줄 뿐 아니라 質的 向上을 도모하는 槓桿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교는 이미 교수의 승진에 필요한 연구실적 심사기준을 강화한 뒤 교수 학술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敎員研究業績 評定規程을 개정한 바 있다. 그 내용은 모든 승진 때 똑같이 200% 연구실적을 제출하던 지금까지의 규정을 고쳐 전임강사에서 조교수 승진 때는 200%,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시 250%,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은 300%의 연구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여 연구풍토 조성에 앞장설 작오를 다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순하게 실적 위주로 치닫는 분위기를 막고 교수의 연구의욕을 고취하여 대외 연구경쟁력 향상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과제가 놓여 있다. 이를 위하여 본교는 지금 1994년도 校費 敎授海外派遣研究 支援計劃을 마련하고 획기적 조치를 취해 나가는 중이다.

이 지원계획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먼저 研究支援金 규모를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해외체재 경비를 지급한다는 점이다. 연구지원금은 매월 미화 1,000불 및 왕복항공료를 지급하여 국비 해외파견연구와 큰 차이가 없도록 배려하였고 파견기간중의 급여도 전혀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다. 다음으로는 가급적 派遣人員을 늘려 되도록이면 많은 교수들에게 조속히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단기연수는 1~3개월 이내, 장기연수는 6~12개월 이내로 하고 연간 단기는 15인 내외, 장기는 25인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研究能力 위주로 파견대상자를 선발하되,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힘쓰려 한다. 5년간의 연구실적과 근속년수를 종합평가하며,

장기연수의 경우 거기에 어학전형과 연구계획서 평가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정신적·경제적 안정 속에 다수의 교수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으리라 여겨지며 研究力의 향상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본교 교수 諸位께서 이 계획의 취지를 심분 이해하고 협조해 주심에 대하여 본인은 크게 감사드리고 있다.

2) 教授 公開招聘制度의 定着

아울러 훌륭한 교수를 초빙하기 위한 제도를 더욱 활기차게 운용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급변 본교의 대규모 교수초빙 때에는 전례없이 공정하고 철저한 방식을 사용했다. 전공분야별 지원자가 1일인 경우에는 심사하지 않고 次期公探에 포함시켜 심사하는 방법을 명문화시켰으며, 연구실적목표에는 심사 우선순위를 명기하도록 하여 핵심논문을 집중적이고 우선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방식을 내걸었다. 가능한 한 公正性을 드높여 우수한 분을 정중히 모셔 들이고 모신 분들을 잘 대우하여 좋은 연구조건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研究中心大學의 要諦가 된다는 것에 본 대학구성원들은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

3) 就業難에 적극 對處

날로 심각해지는 就業難을 해소하기 위한 능동적 대처방안의 하나로 총장인 본인이 직접 主要企業體를 방문하여 기업대표자와의 면담을 추진하였다. 실제로 지난 해 10월, 13개 기업체의 대표를 직접 만나보았고 教育部를 비롯한 3개 관련기관의 관계자들과도 회동하였다. 이는 본교에 대한 기업체의 인식을 변화시켜 產學協同體系의 고리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졸업예정자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단순히 취업알선의 부탁이라는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地方大學 出身 학생들이 응시 기회조차 변변히 얻지 못하는 풍토를 개선하여 均等한 機會를 얻게 하는 데 더 큰 목적을 두었다. 비록 일거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으나 치더라도 이러한 형태의 적극적 노력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되어야 하리라고 여긴다.

학내적으로도 就業輔導課의 능률적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취업상담, 취업

자료조사, 취업동향분석에 각각 전문적 차원의 활성을 기하고, 거기에 재학생 副職에 관한 지도와 정보제공의 업무를 더한 4개 분야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勉學의 精誠이 원활한 就業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이 어려운 국면을 기필코 헤쳐 나가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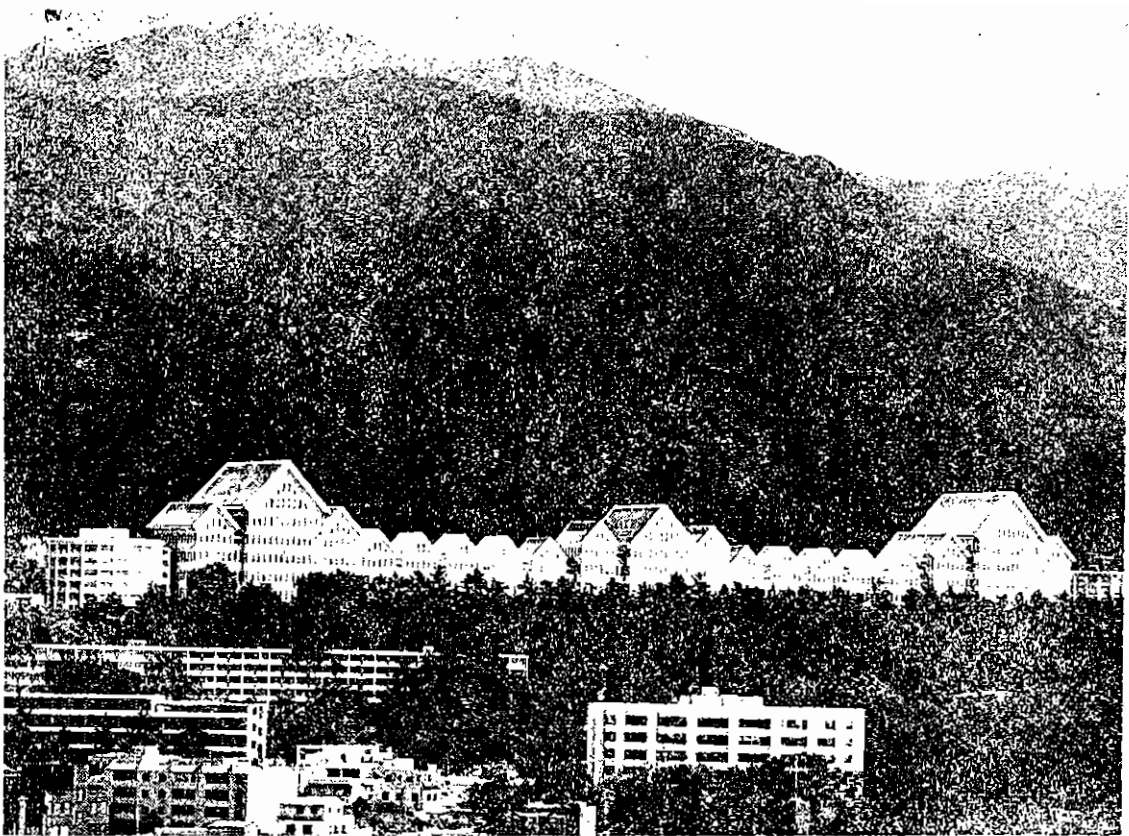
4) 教育環境의 改善

大學人들의 정서 함양과 순화를 위해 環境을 整備하는 것 또한 조금도 경시할 수 없는 작업이다. 극단적인 실용성 위주의 사고가 불려 일어난 적선적이고 단발적인 본교의 외양도 教育的 安定性을 고려하여 치밀한 계획 아래 다듬어지고 있다. 本館 앞의 조경공사와 대운동장 주변의 새 단장은 학교의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거기에 다수의 의사를 결집하여 설계 완성된 正門이 그 모습을 드러내면 조대인의 기풍을 살려나가는 상징물로서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빈약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 후생복지시설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미구에 그 윤곽이 드러날 長期發展計劃 속에는 특히 厚生 분야가 강조되어 있으며 학생기숙사, 휴게실 같은 기본시설의 설치 문제를 비롯하여 기존 의료시설, 식당 등의 확대와 현대화 작업이 병행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교육환경 개선작업에는 당연히 예산확보의 여부가 문제점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를 풀어내는 관건은 일차적으로 效率의 豫算運營에 있다고 보고, 본교는 지난 1989년부터 전국 사립대학 중 처음으로 예·결산 내용을 전면 공개하는 [公開豫算行政]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낭비적 요소가 제거되어 불필요한 경비를 절감하게 되었다. 지금도 본교 구성원들은 절약정신과 함께 합리적 재정운영을 추구하는 사고가 몸에 배어 있다.

預託金 사용방식도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과감히 바꾸었다. 이제까지 은행만을 이용하던 방식을 탈피하고 제 2금융권을 활용함으로써 연간 20억 원의 초과수익을 올렸으며 주 5일 근무제 및 업무전산화 등으로 각종 經費를 절감하



▲ 朝鮮大는 광주의 정신적 표상인 無等山の 줄기에 연하여 널리 펼쳐져 그 氣像과 儀容을 드러내고 있다. 무등의 웅자는 곧 민족·민주의 朝大人의 기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 상대적으로 실험·실습 기자제 구입과 장학금 지급 등의 폭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大學發展基金이 조성되고 이를 통하여 발전계획이 순탄하게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기금조성작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5) 市民과 함께 숨쉬는 大學

끝으로 본교가 새 세기를 향해 전진하는 데 있어서 시민과 함께, 민족과 함께 호흡하려 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싶다. 민족의 대학으로 출발했기에 민족에 대한 봉사를 이념으로 간직하고 있는 본교는 올해도 市民을 위하여 다채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시민교양강좌를 배풀어 지식의 대중적 공급에 힘쓰고, 어학연구소를 개설

하여 시민들의 외국어연수에 도움을 주는 일을 제도화시켜 나가는 것도 이러한 차원에서 검토된 것이다. 이미 체육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을 돕는다든지, 농어촌이나 도시빈민을 위한 봉사활동들을 수시로 계속하여 地域社會와 持續的이고도 有機的인 관계를 맺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民主的 設立精神을 구현하는 대학’, ‘研究와 教育에 전념하는 대학’, ‘就業難을 극복하는 대학’, ‘市民과 함께 21세기를 향해 전진하는 대학’—이것이 개교 50주년을 목전에 둔 民族 朝鮮大學校가 추진해 나아가고 있는 이상이며 지침이다. ■